

■ 입학 시즌 '교복 공동구매' 뜨거운 관심

교복값 거품빼기 유일 대안 학교·학운위가 적극 나서야

입학 시즌이면 어김없이 불거져 나오는 교복값 거품의 대안으로 제시돼 온 공동구매가 각급 학교와 운영위원회의 소극적인 자세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당사자들이 입학·설명회·합의 등으로 이어지는 까다로운 공동구매 과정을 감수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7월 "원활한 교복 공동구매를 위해 광주시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신입생들의 교복 착용시기를 5월로 1~2개월 늦추도록 시달렸다"고 밝혔다. 고등학교들이 3월부터 교복을 착용하기 때문에 공동구매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비싼 가격의 교복을 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몇년전 부터 교복 착용시기를 5월로 정하고 있는 대다수 광주시내 중학교들도 교복 공동구매 비율이 높지 않은 것은 교육부의 이번 지침이 실제 공동구매 행위와 크게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내 82개 중학교 중 35.4%

인 29개 학교의 신입생이 공동구매를 통해 교복을 구입했다. 교복 착용시기가 대부분 3월인 고등학교는 전체 61개 학교 중 16.4%인 10개 학교에 불과했다.

이처럼 교복의 착용시기를 1~2개월 늦추는 데도 공동구매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은 ▲학교와 운영위원회의 소극적 자세 ▲ 공동구매로 구입한 교복은 질이 좋지 않다는 선입견 때문에 학생·학부모가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이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 아이의 취향에 맞춰 교복을 구입한다"며 공동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도 결집률이 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최은순(44) 광주시부장은 "대다수 학부모 운영위원들의 경우 자녀들이 재학생이어서 신입생과는 직접적인 관계

가 없는 데다, 공동구매를 할 경우 학교 측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학기 초 '교복 공동구매' 문제를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 꺼려한다"며 "공동구매가 교복값의 거품을 빼는 유일한 대안인 만큼 학교와 운영위원회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소비자문제연구원' 나정숙(50) 원장은 "교복 메이저 업체인 대형 3사의 대리점업자들이 '공동구매를 할 경우 교복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식의 유언비어를 퍼뜨려 공동구매 기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원단은 물론 디자인도 큰 차이가 없는 데도 절반 가격이라면 어떤 소비자가 비싼 것을 사겠느냐"고 말했다.

학부모 이묘숙(43·광주시 북구 일곡동)씨는 "3년 전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학교 측과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많은 학부모가 공동구매에 참여했다"면서 "공동구매를 통해 유명회사 제품을 절반 가격에 구입했지만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절반 값에 품질도 좋지만 입학·설명회 등 까다로워 소극적 대응...학생들 피해

광주 살레시오고등학교

땀 흘리는 여름엔 자유롭게

교복 가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광주 살레시오고등학교의 노력은 각별하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입는 하복에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살레시오고 학생들은 하복을 입는 5월부터는 교복의 기본 색상이 '베이지색 바지와 흰색 상의'만 갖춰 입으면 굳이 교복을 입지 않아도 된다. 대신 상의에 깃이 달려 있어야 하고 너무 화려한 무늬는 피해야 한다.

학교 교복이 갖는 품위를 갖추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지만, 땀을 자주 흘리는 여름철 학생들에게는 옷을 자주 갈아입을 수 있어 무엇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공부에 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광주여자고등학교

졸업식 때 후배들에 대물림

9월 졸업식을 하는 광주여자고등학교에서는 졸업식 외에 특별한 행사가 있다. 졸업식이 끝난 뒤 강당한 견을 마련하고 학교를 떠나는 졸업생들의 교복을 전시, 후배들에게 대물림하는 것이다. 지난 2003년부터 자리 잡아 이젠 졸업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행사가 됐다. 지난해의 경우 300여 벌의 대물림 교복 중 60~70벌이 후배들에게 돌아가 재사용됐다.

광주여고 신중해 교감은 "후배들에게 교복을 물려주게 되는 학생들은 졸업식 이후에 입을 사복을 지참토록 전달했다"며 "교복 대물림을 통해 선·후배의 정을 쌓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20만원을 웃도는 교복값이 부담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 한국 야생동물 보호협회 전남도 지회' 회원들과 전남도 공무원 230여명은 7일 겨울철 먹이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야생동물들 위해 함평군 대동면 아산에 고무마와 당근 2t을 뿌렸다. <관련기사 20면> /함평=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해남 산불 잇따라

4일부터 5건...방화 추정

해남의 아산에서 연쇄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지난 4일부터 5건 잇따라 발생했다.

6일 밤 10시30분께 해남군 마산면 도암리 영대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잡목 등 660㎡를 태우고 10여 분 만에 꺼졌다. 5분 뒤에는 이곳에서 7.5km 가량 떨어진 해남군 황산면 일신리 아산에서도 불길기 치솟았으며, 잡목 330㎡를 태운 뒤 진화됐다. 앞서 지난 4일 밤 10시20분~5일 새벽 1시30분 해남군 해남읍 소재 아산 3곳에서는 1시간 간격으로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다.

소방서는 산불이 난 곳이 각각 5~8km 가량 떨어진 것으로 미뤄, 누군 가 오토바이나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무등산 나무 벤 50대 검거

광주 동부경찰은 7일 무등산에서 무단으로 나무 수십 그루를 벤 혐의(산림법 위반)로 김모(55)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무등산 동쪽골 자신의 소유 300여평 내에 있는 전나무와 참나무(10~60년생) 80여그루를 톱으로 잘라낸 혐의다.

/임주형기자 jhim@kwangju.co.kr

호남고속도 폭설 피해자 일부 승소

도공 상대 위자료 소송 법원, "천재지변 아니다"

광주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두형 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12월 호남지방에 내린 기습폭설로 인해 호남고속도로에 고립됐던 서모(62·광주시 북구 매곡동)씨 등 피해자 217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자료(1인당)는 고립시간을 기준으로 ▲6시간 미만은 20만원 ▲6~12시간 30만원 ▲13시간 이상 40만원이다. 재판부는 또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폭설이 호남지역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대 폭설이기는 하지만, 고립 구간의 교통 정체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도로공사 측이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 조치를 적절히 취했다면 차량정체나 고립시간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04년 이 사건과 유사한 폭설 사태를 겪었고, 재발방지를 위해 한층 강화된 고속도로 교통 통제권한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해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고통과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5년 12월 21~22일 최고 30cm까지 내린 폭설로 호남고속도로에 고립돼 피해를 본 서씨 등 217명은 시·군·자치단체 '참여자치 21'을 통해 한국도로공사 상대로 1인당 200만원씩 모두 4억3천여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상동 광주시의원 당선 무효형 선고

광주지법 제4형사부(김재영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광주시의원 이상동의 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배드민턴 연합회 회장으로서 체육행사를 주도하면서 700만원 상당의 양주를 회계공했고, 같은 날 열린 '4행시 짓기 대회'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시를 1등에 당선되도록 한 정황이 인정된다"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나원침 (7049) 김장동



평중선도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636 최대단점!
 (평중선도서) 400만 권의 책이 모여!
 수권선도서 피오리
 (평중선도서) 062-367-9000

자살자살자살...나는 '살자'로 들린다

○~7일 창원지방 법원 제3형사부에서 열린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로 기소된 A(31) 피고인이 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의 요구에 따라 "자살"이란 말을 10번 반복해 눈길.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살'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살자'라고 들린다"면서 "죽어야 할 이유를 살아가야 할 이유로 새롭게 고쳐 생각해 살아갈 것"을 훈계.

○또 중국 작가 탄취잉의 에세이 집인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책을 피고인에게 건네면서 "죽을 생각을 하지 말고 앞으로 책 속에 있는 많은 일 외에 여태껏 하지 못한 일을 실천하면서 살기 바란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A 피고인은 카드 빚을 고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남 모 숙박업소에 투숙한 뒤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 /연합뉴스

국제외식산업(주)
 맛과 멋을 생품계...
 아이외 결혼식 가능 ● 관광버스음식 대접
 (062)262-2278

Cell Banking
 셀뱅크는 건강할때 자신의 세포를 보관해둔다!
 (062)373-3475